

야성 찾아 쥐야 '멸종' 막는다

<野性>

국립공원 40년

<2부> 지리산의 오늘과 내일

5 반달가슴곰 복원 문제와 과제

천연기념물 제329호인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을 위한 노력이 8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추진 과정=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지난 1985년 12월 멸종위기에 놓인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종(種)복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반달가슴곰 종(種) 복원 기술개발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아생동물 복원사업 추진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50마리는 확보해야 자연번식

당시 환경부 등은 개체군 존속 가능성 분석을 통해 지리산 일대의 반달가슴곰 개체수가 극소수인 5마리 정도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종(種) 복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5마리의 개체로는 근친교배 등으로 인해 몇 년 내에 완전 멸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지난 2002년 5월 지리산 남부 사무소에 반달곰관리팀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복원사업에 들어갔다.

2004년 5월에는 지리산 자락인 구례군 문수리에 80평 규모의 반달곰 계류장과 1천 660평 규모의 자

연적응훈련장이 조성됐고, 2004년 10월 연해주로부터 암·수 각 3마리씩 6개체의 반달가슴곰이 도입돼 처음으로 지리산에 방사됐다.

이어 2005년 7월에는 북한산 반달가슴곰 암·수 각 4마리가 방사됐고, 같은 해 10월 연해주산 암컷 4마리·수컷 2마리가 방사되는 등 총 20마리가 지리산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민가 접촉 등산객 어울려 적응 실패

밀렵꾼까지 설치 복원에 큰 어려움

사유지 정비 등 주민 협력체제 시급

◇절반 가까이 '사고'=지리산에 방사된 20마리의 반달가슴곰 중 절반에 가까운 7마리가 문제를 일으켰다. 3마리는 자연적응 과정에서 주민들의 한봉(토종꿀)을 망가뜨리거나 농가에 피해를 끼쳐 회수됐고, 3마리는 올무 등 주민과 밀렵꾼이 놓은 덫에 걸려 폐사했다. 또 1마리는 실종돼 현재 경찰이

줘야 하지만, 우리나라 등산객들은 음식을 주고 있어 악성이 크게 떨어지고 길들여지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등산객들이 주는 음식 때문에 곰의 이빨이 썩는 등 방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대안=국립공원 내 사유지 정비정책과 주민 이주사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지리산 국립공원에는 현재 23개 마을 420가구에 1천 15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에 대한 홍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